영암군, 8월까지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6억원 돌파

각종 어려움 속 소액기부로 저변 확대… 공격적 기부 유치 활동 주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8/31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 6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가 37% 감소했음에도 215% 증가한 금액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1~8월 1,758건이었던 소액기부가 올해 같은 기간 4,806건으로 대폭 증가해 모금액 6억원 조기 달성을 이끌었다고 판단, 도움을 준 영암군민과 향우 등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올해 봄 지역 가축 전염병과 전국 규모 대형산불 발생, 각종 행사·축제 취소 등 쉽지 않은 기부 여건 속에서 공격적 기부 유치를 진행해 거둔 성과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눈여겨 볼 지점은 영암군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4, 5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배, 4배 높은 모금 건수를 달성했다는 것.

나아가 지난해 4개였던 기금사업을 올해 12개로 확대해 전국 지자체를 선도했다.

기금사업 중 하나로 제도 시행 첫해부터 운영했던 20년 만의 고향사랑소아청소년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언론매체의 기고문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첫손에 꼽기도 했다.

영암군은 올해 초부터 지역 기관·기업 55개소를 방문하고, 지난해 2.6배가 넘는 817개의 홍보 공문을 발송해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설명했다.

여기에 답례품 증량 이벤트와 맞춤형 프로모션 등으로 더해 1억7,000만원 이상의 모금실적을 올렸다.

지금까지 198종의 답례품을 발굴한 영암군은 농특산물뿐 아니라 가공품, 체험·숙박권 등 생활인구 관련 다양한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를 열어 위생·품질관리, 포장·배송, 고객응대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작업장 체크리스트와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으로 상품 경쟁력도 높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의 경로를 분석한 입소문 홍보, 답례품 배송 시 감사장 동봉, 영암군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운영 등으로 기금사업과 답례품의 차별성을 강조해 기부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영암군은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 강화, 기부금 모금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 감동 기부사업 발굴 및 투명한 집행 등으로 한번 기부자를 평생 기부자로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주 영암군 홍보전략실장은 "이번 기부금 6억원 모금 달성은 영암군민과 향우 등의 도움으로 이룬 결실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영암군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알차게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9월 '영암사랑기부하면 무화과랑 한우가 우르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무화과 1kg을 추가 증정하고, 한우 5개 답례품 선택 기부자에게 불고기, 국거리, 사골곰탕 등을 증량해 제공하는 내용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보성군, '청렴오락실' 개최… 청렴 문화 확산 앞장

조직문화와 청렴 의식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1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청렴 오락실'을 개최해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청렴 오락실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청렴 관련 법령을 퀴즈와 게임으로 풀어내어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청렴 OX 퀴즈, △부서 대항'오징어게임 4종 경기'(제기차기·비석치기·딱지치기·공기놀이)로 꾸려졌으며, 부서 대표선수 128명과 각 부서 응원단이 함께 참여해 대회의 실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부서장과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참여한 이벤트 경기는 상호 신뢰와 유대감을 보여주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청렴 퀴즈에서는 개인별 서바이벌 형식으로 15문항의 OX 문제가 출제돼 긴장감 넘치는 경쟁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생존자 10명이 개인 우승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

부서 대항 게임에서는 최종 8개 부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열정적인 응원으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킨 4개 부서에는 별도의 응원상이 수여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군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청렴 오락실처럼 재미와 배움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장성군,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농지대장 정비 올해 말… 농지 이용실태 조사 11월 30일까지

장성군이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대장은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다. 면적에 제한 없이 지역 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되고 있다. 1973년에 도입된 농지원부 제도가 2022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됐다.

올해 농지대장 정비 대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옛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1000㎡ 미만)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종료 △농지 조사 타용도(건물, 도로, 임야, 나대지, 휴경 등) 물량 등 총 1만 2186필지다.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통해 취득한 농지도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총 조사 규모는 7958필지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조사한다.

장성군은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061-390-8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황해연 기자

구례군, 실습 중심 훈련으로 군민 안전 역량 강화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으로 '골든타임' 확보

전남 구례군은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주목해,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 의료진이 강사로 참여해 실제 위급 상황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하임리히법) 등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마네킹을 활용한 반복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이어가며,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미시행 대비 약 2.2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보건의료원은 이를 토대로 군민의 '골든타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올바른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기회를 확대해 군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나주시, 스타기업 2곳 신규 선정… 지역 기업 지원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성장 잠재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2025년 스타기업'으로 신규 선정하고 맞춤형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9일 시청 이화실에서 (재)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2025년도 스타기업 및 pre스타기업 선정'에 따른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시장과 전남테크노파크 관계자, 기업 대표 등 13명이 참석했다.

올해 스타기업으로는 농업회사법인㈜보리담은(대표 김희명), 지엠케이㈜(대표 박민우) 2곳이, pre스타기업으로는 다온플레이스㈜(대표 박주현), ㈜한국그리드포밍(대표 강지성) 2곳이 선정됐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술기반의 벤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유망 기업 발굴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유도를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생태계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재)전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올해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보리담은은 2013년 설립되어 찰보리빵을 생산하며 지난해 매출 45억 원을 달성했다. 지엠케이는 2018년 설립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수액세트와 부목 압박용 밴드 등을 생산하며 지난해 매출 20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pre스타기업으로 선정된 다온플레이스는 디지털쿠폰 기반 플랫폼(정보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그리드포밍은 태양광 발전장치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에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정보화, 인증, 지적재산권, 경영 컨설팅 등 6개 분야의 맞춤형 경영서비스를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화순군, 2025 군민행복 아카데미 7회차 강연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9월 23일(화) 오후 3시 화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군민행복 아카데미 7회차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스포츠의학과 운동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 대학원 홍정기 원장을 초청하여 '생존 근육 운동'을 주제로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홍정기 원장은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교에서 운동과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축구선수 기성용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한 스포츠의학 전문가로 방송과 저서를 통해 대중과도 활발히 소통해 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단순한 운동법을 넘어 삶을 지탱하고 건강을 지키는 핵심 '생존 근육'의 중요성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근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어떻게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세계적인 스포츠의학 전문가의 시각에서 운동과 건강을 바라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실천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행복 아카데미는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평생교육팀(☎061-379-33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종환 기자